

# 장흥군 “숙원사업 해결 위해 ‘자체 설계단’ 나선다”



### 자체 설계단 운영 통해 용역비 1억4천5백만원 절감 다음달 소규모 공사 착공해 오는 12월까지 마무리

장흥군이 주민 숙원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자체 설계단을 운영한다. 자체 설계단은 올해 제3회 추경 현장방문에서 건의된 117건(3,175백만원)의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군은 자체 설계단 운영을 통해 오는 10월 소규모 공사를 착공해 12월 말까지 각종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자체 설계단이 운영되면 소규모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설계용역비 약 1억 4천 5백만원이 절감 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 신규 기술직공무원들의 기술력 강화 및 설

계능력 배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주민숙원사업’은 마을 안길 확장과 야스콘 포장, 용·배수로 등 소규모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각종 숙원사업은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직결된 사업”이라며, “지역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생활 환경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홍=김도영기자



### 완도군, 불합리한 규제 적극 개선해 나간다

####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활발

완도군은 군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기업 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자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다. 규제 개선은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자치법규 개정 등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활동이다.

완도군은 상반기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으로 군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중앙부처 및 중소기업음부즈단, 규제 개혁 신문고 등에 ▲농약 판매업자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조경량 비행장치 안정성 인증 검사 기관 확대 등 2건의 과제를 건의하여 중앙부처에서 수용했다.

2건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이다.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 외에도 군에서 자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아내 ▲도시민 여객선 전산 발권 제한 불편 사항 개선 ▲소수력 발전시설 전 기간전관리 대행자 선임 요건 완화 등도 중앙부처에서 수용되는 성과를 이뤘다.

지난해에는 수산자원보호 구역 내 일반 야영장 영입이 허용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군은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는 한편 규제 애로사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추출하여 업종별 규제 애로 설문 조사서를 발송하는 등 숨어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현장에서 적극 발굴하여 군민 중심의 규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불합리한 규제에 관해 의견이 있는 군민과 기업은 완도군 홈페이지 규제 신고센터 또는 전화(☎061-550-5212)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강진고려청자박물관, 제24회 학술심포지엄 개최 ‘문화사적 관점에서 본 고려 문인들의 청자 애호문화’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고려 문인들의 청자 지호락(知好樂)’이라는 주제로 박물관 시청각실에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현재 진행중인 특별전 ‘서재삼영(書齋三詠), 향로 화분 배개’와 연계한 이번 심포지엄은 고려시대 문인들이 서재공간에서 즐겨 사용했

던 청자 향로, 화분, 배개를 대상으로 세 가지 연구논문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특히 세 종류의 청자는 문인들이 서재나 선방(禪房)에 놓아두는 필수품으로서, 당시 그들이 남긴 시와 글에는 각각의 청자와 관련된 사회적 의미와 바람이 담겨 있다. 박지영 국립무형유산원 학예연구관이 ‘고

려시대 향문화(香文化)와 향로(香爐)’라는 주제로 청자향로에 대한 발표를 시작한다. 두 번째 발표는 유진현 호림박물관 연구부장이 ‘고려청자 유각(有脚) 사각·팔각 기명(器皿)의 조형과 용도 고찰’이라는 주제로, 기존에 향로로 분류되어왔던 청자가 화분임을 밝히는 발표를 이어간다. 마지막 발표는 ‘고려시대 청자 배개의 특징과 의미’라는 주제이며, 김세진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청자배개에 담긴 새로운 사회적 의미를 규명한다. 김윤정 고려대학교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토론을 진행하며, 토

론자로신준 공주대학교 역사박물관 연구원, 김은경 덕성여대 인문학과학연구소 교수, 박정민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윤성일 고려청자박물관장은 “이번 학술행사는 문화사적 관점에서 고려시대 청자의 용도와 의미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으며, 연관된 특별전을 좀 더 깊이있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4일에 개막한 ‘서재삼영, 향로 화분 배개’ 특별전은 오는 11월 27일까지 계속된다. 강진=김영일기자

### 해남형 생활관광 프로그램 ‘땅끝마실’ 체류형 관광 인기 6개월간 110개팀 찾아가...최대 6박7일

해남군 생활관광 프로그램 ‘땅끝마실’이 해남군의 대표적 체류형 관광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땅끝마실은 해남군에서 인증한 숙박업체에서 1박 2일동안 체류하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생활관광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문체부 생활관광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1박 2일 외에도 3박 4일, 6박 7일의 장기 체류형 상품도 추가 운영하고 있다. 현재 땅끝마실은 지역 숙박업체 등 19개소가 참여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올해 약 110팀 320명이 땅끝마실을 체험하는 등 지역민과 소통하며 땅끝 해남의 잠재력을 느끼는 여행을 즐겼다. 또한 9월 말부터는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아남도 숙박할인이벤트와 연계하여 최대 50%까지 저렴한 금액으로 땅끝마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진도군,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 6명 선정 전 공직자 친절 마인드 향상과 군민 중심 감동 민원 행정 실천



진도군이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 처리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인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을 선정·시상했다.

14일 진도군에 따르면 민원사무에 대해 처리 기간보다 단축 처리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 처리에 기여한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 6명을 시상했다.

우수 공무원들은 법정민원(3명), 국민신문고(1명), 정보공개(1명) 등 3개 분야 민원 중 민원 처리 기한을 61% 단축하고 보다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했다.

새울 법정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은 김은석(진도계축산과), 박종구(지역개발과), 임민제(그린에너지사업과), 윤예원(세무회계과) 주무관이 선정됐다.

국민신문고는 고차원(관광과), 정보공개처리는 노경민(보건소)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김희수 진도군은 “앞으로도 전 공직자의 친절 마인드 향상과 군민 중심의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기자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